

작년 미국의 군용 항공분야 총수출은 4조 8천2백억원에서 약간 감소한 4조6천8백억원이다. 그러나 국내 군용 항공분야에서의 수익은 상당히 감소하였다. 이 상황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B-2 스텔스 폭격기, F-14, F-15, F/A-18 전투기, C-17 수송기, 개량 중거리 공대공 유도탄(AM-RAAM), 휘닉스(Phoenix) 유도탄, V-22 오스프리 항공기와 더이상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개량 전술전투기(ATF)와 경헬기(LH) 계획들이 결국 타격을 받았다.

각종 지상 및 해상장비와 통신장비가 감소된 것처럼 M1A1 Abrams 주전차와 항공모함 전투단계획은 상당히 축소되었다.

엄격하게 체중조절을 하고있는 사람이 식단에 高칼로리 음식에는 줄을 그어놓고 음식을 고르는 것처럼, 현재 美 국방장비 획득예산이 다뤄지고 있다. 긴축은 이미 시작되었다. 휴즈 항공사는 수천명의 인원을 해고하였고, MD사는 상당한 인원을 해고시킬 것이라고 7월에 발표하였다. 심지어 충분한 상용항공기 판매계약을 가지고 있는 보잉사도 방산사업분야를 폐쇄시켰다.

새로운 위협 — LIC

이런 지출감소가 장기적이고 급격한 하락 현상인가?

아니면 단기간의 조정국면인가?

분명히 소련의 위협이 감소되면(비록 실제 감축보다는 추상적이고 약속만 한 것이지만) 미국의 방위비 지출도 감소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문가들이 자주 언급하는 것처럼 예상 위협과 준비능력 및 소요에 견주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시 대통령과 국가안보회의, 국무부, 중앙정보부(CIA), 체니 국방장관과 의회는 지역불안정, 즉 低밀집분쟁(Low Intensity Conflict)이 냉전과 우려되는 유럽의 전쟁시나리오를 대신할 중요한 군사위협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동

의하고 있다.

유럽의 전쟁 시나리오는 1948년이래 미국의 국방지출을 보강해오고 있다. 국방지출 삭감은 미국의 작전능력을 해치지 않을 것이지만, LIC 상황에서는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현 상태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나토와 바르사바조약기구간의 전쟁발생시 채택될 덩치 큰 장비는, LIC軍을 위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어온 경량에 이동이 용이한 장비를 위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해답은 많은 국방정책 담당자와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희미한 시력 대신에 정상적인 시력으로 LIC를 지켜보는 것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LIC에 대한 정확한 초점을 베트남시대를 지배하였던 비재래전(非在來戰) 장비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현재의 中東소요에 두어야 한다. 현재 시리아와 리비아는 정밀화확무기를, 시리아와 사우디 아라비아는 장거리 유도탄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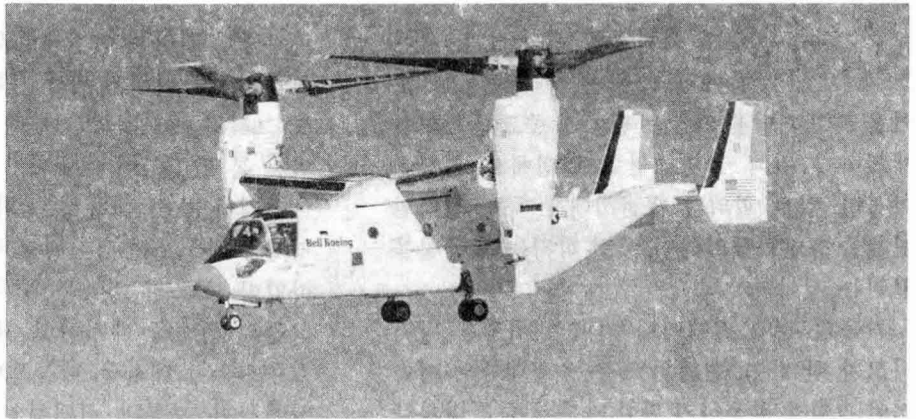
사우디 아라비아는 최신 토네이도 전투기 항공대를 편성할 것이며, 쿠웨이트와 사우디 아라비아는 상당량의 주전차를 보유할 것이다. 이라크는 5년 이내에 핵무기를 보유할 것 같다. 이스라엘은 장거리 순항(크루즈) 유도탄을 보유한 디젤 잠수함을 확보할 것이다.

최근 소련의 최신 헬기에 대항하여 아프카니스탄의 반정부군들은 스팅거(Stinger) 유도탄을 배치하였다. 소련 뿐만 아니라 서방국가들도 스텔스 폭격기를 기만할수 있는 레이더 장비를 세계시장에 내놓았다.

이와같은 많은 무기, 수송, 통신 장비들에 대한 기술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소유하고 있지만, 곧바로 적들의 손에 유사한 기술형태로 들어가 군사균형을 뒤집어 놓게 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고속의 對장갑 대공장비 헬기와 장거리용 對장갑포를 장착한 中·重전차 및 최신 초음속 전투기에 필요하며, 장비의 전진배치와 해외의 지상 및 공군기지가 덜 필요하고 험준한 지역에 착륙할수 있는 수송기와 항공모함시대에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

LHX와 (혹은) V-22 오스프리, M1A1 아브람스 주전차, ATF, B-2, C-17기와 항공모함에 대한 최초 계획한 구매는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유능력이 필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확실히 축소 혹은 대체된 생산구매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고 있다.

LHX와 (혹은) V-22 오스프리, M1A1 아브람스 주전차, ATF, B-2, C-17기와 항공모함에 대한 최초 계획한 구매는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유능력이 필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확실히 축소 혹은 대체된 생산구매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중요한 사실은 축소되고(혹은), 대체된 장비획득은 LIC위협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결합되었다. 실예(實例)로 C-17기의 축소구매를 취소함으로써, 미국은 어떤 지역에 신속한 접근을 못하게 된다. 또한 현존의 항공기를 개량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것이다.

더구나 수륙양용 공격면에서는 V-22 오스프리를 몇대 구매하는 만큼이나 현존의 헬기를 수송작전용으로 개량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또한 충분히 스텔스 폭격기를 보유하지 않고는 대량의 파괴적인 장비배치를 준비중인 국가에 대한 작전시 적 상공(strike location airspace)을 침투할수 있는 미국의 능력을 과면시할수 있다.

현재 상당히 희망적인 것은 몇몇 지역위협 국면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계획들이 국방부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계획들중 미국과 이스라엘의 Arrow 對유도탄용 미사일 계획과 근접공중지원기로서 F-16의 배치, 장갑을 관통할수 있는 더 가벼운 소재에 대한 연구 개발, 수륙양용차량(AAV)등이 있다.

비용절감 방법으로 국방부는 LHX 대체계획으로서 전투헬기의 개량을 고려중이다. 또한 ATF대신에 F-16기의 변형기종, B-2 폭격기 대신 B-52기에 배치한 개량 Stand-Off무기, 거리가 멀고 험난한 지형에 도달하기 위한 C-17기 대체로 C-141기와 C-130기의 광범위한 운용을 고려중이다.

그러나 비용절감은 가끔은 환상적인 생각이다. 이론상 LIC작전은 작전비용이 저렴한 신속한 개입과 철수이다. 그러나 미래의 LIC작전은 1년 혹은 장기간 지속되는 방향으로 쉽게 확대될수 있다. 현존장비의 작전능력 및 생존가능성과 수년간에 걸친 개량비용은 현재 예산 논쟁으로 삭제된 최신장비의 축소구매비용만큼 비싼 것이다.

미국의 방위산업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은 정책가들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적극적인가에 달려있다. M1A1 주전차 생산업체인 GD사의 지상장비부는 BAc사와 주전차 포탑판매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Rockwell Int'l사와 영국의 Marconi사는 연구개발과 센서 및 Sensor Fusion 장비에 대한 세계시장 판매에 관한 협정을 논의하였다.

GD의 유도탄 사업부와 서독의 협력업체는 소형함정용 Rolling Airframe 유도탄(RAM)을 판매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방산업체가 냉전의 해빙으로 시작된 평화를 유지시키는데 따른 훌륭한 사업적인 감각과 수단으로 보인다. (旭)

<Miltech 90/8>